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2월 15일 (금)  
-- (음력 11월 3일) --  
Пятница  
15 декабря 2023 г.  
№ 48 (1206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 주정부 청사 앞에 설치된 새해트리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 벨라루스와 무역 확대

사할린주가 벨라루스 공화국의 무역 확대와 일련의 경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지역과 이웃 국가 간의 상호협력 발전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러시아 벨라루스 공화국의 드미트리 크루토이 특명전권대사와 논의했다. 올해 사할린주와 벨라루스 공화국 간 무역은 상당히 증가했다. 사할린주에서 벨라루스로 수산물 공급만 3.6배 증가하여 3천 톤 이상에 달했다. 사할린주에는 벨라루스 마즈(MAZ) 생산의 버스가 공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벨라루스의 버스 100대를 구입했고, 석탄 운송을 위해서는 강력한 벨라즈(БелАЗы) 트럭이 공급되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식품들도 공급되고 있다. '마즈(MAZ)' 생산의 버스 장비는 노선버스 교신 조직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사할린주는 특수장비 구입을 늘릴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설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기술 서비스센터를 개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벨라루스와 사할린주와의 무역 매출액은 한 해 5천만 달러에 이른다. 만남에서 식량보조제, 사료 단백질, 미네랄 비료 생산에 있어 더욱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사할린주에 저소득층 주민들 거의 절반 감소

사할린 지역에서 최근에 들어 저소득층의 주민 수가 4만 명에서 2만 3천 명까지 절반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행한 지원책과 각 가정 맞춤형 접근방식을 선택한 덕분에 저소득층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5년간 지역 사회정책과 식량안보 강화 부분의 사업결과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 주두마 의원들과 만남에서 설명했다.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주지사는 특히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포함해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과 수차례의 개별적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정과 결손가정 및 건강상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부모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이 좀더 편안하게 학교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각 가정의 생활환경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주민과 개별 만남에서 장애인들은 무엇보다 휠체어, 틀니,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보조기 등, 재활을 위한 기술적 보조기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연방 사회재단의 새로운 지도자와 공동으로 장애 등록과 재활장비 확보 절차를 간소화했다. 2019년에 지역의 장애인들이 1,390대의 보조기를 받았다면 올해는 5배나 넘는 7,640대를 받았다. 주지사는 내년에는 신속하게 재활 도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100%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내세웠다. <사할린 장수> 기획의 참가자들의 수도 7천 명에서 3만 명까지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획은 고령층의 주민들에게 무료 스포츠, 보건, 문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료들과 교류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독신연금 수

급자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면서 <65세 이상 배려> 기획의 참가자 수도 2,500명에서 7,400명으로 증가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지원책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보조금 덕분에 1,600 다자녀 가구와 800명의 장애인들이 주택을 구입했다. 사할린 지역에는 총 200개 이상의 사회적 지원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두 명당 한 명꼴로 지원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물가이다. 사회적으로 주요 물품들은 계속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할린 지역에서는 실속있는 쇼핑망이 개발되고 있다. 쇼핑망에서 가격차이는 일반 소매점보다 2배나 저렴하다. 5년간 쇼핑망은 거의 1/3 배가 확장됐으며, 현재 주 전역에는 770개 이상의 소매점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주지사는 수산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직송 생선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획을 실시해 지난해에 사할린 주민들이 신선한 생선 500톤을 살 수 있었다. 올해는 이를 2배 이상 늘려 시행했고, 내년에는 1500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사할린 주민 모두가 일년 내내 갖잡은 신선한 생선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이런 목적의 사업은 계속된다. 최근 몇 년간 사할린에서 첫 치즈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포로나이스크의 유제품공장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노글리키에서는 첫 육류 가공공장이 가동되었다. 2024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보존할 농산업단지가 운영된다.

## 단신

### 푸틴 대통령, 14일 연말 기자회견-직통전화 행사 진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연례 기자회견 겸 직통(국민과의 대화) '올해의 결과' 행사를 가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일부터 13일 오후 9시까지 자국민으로부터 사전 접수한 질의가 206만177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 관련 질문부터 사회경제 등 다양한 수많은 질문에 4시간 이상 답하였다.

### 사할린주 3명의 주민 명예시민 되다

<사할린주의 명예시민> 칭호가 대조국 전쟁에 참전한 세몬 소블레브, 미술비평가 라이사 고로호와, '사할린-셀프-서비스'의 대표였던 레오니드 카페브에게 수여됐다.

### 사할린주에 일주간 3,500명이 급성호흡기질환과 독감에 걸려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급성호흡기질환과 A형 및 B형 독감(아형 아님)과 A형(H3N2)에 걸린 환자 3,491명이 등록됐다. 사할린주에서 계절성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상황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사할린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지난주에 급성호흡기질환과 독감 감염률은 전주보다 31.6% 더 증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감염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지역 내 폐렴환자는 106명으로 기록됐고, 이 중 아동환자 비율은 59.4%에 달했으며, 일주일간 폐렴감염률은 전주대비 증가했다. 신종코로나19 확진자는 131명으로 기록됐으며, 그중 22명은 미성년자다. 코로나 19 환자들은 급성호흡기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82.4%가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갔고, 1.5%가 중증을 겪었으며, 그외에는 중간 정도의 증상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곧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국어 교육, 한국학 연구에 나서며 주변에 긍정에너지를 전달하는 한 넬리 카자흐대학 교수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 넬리 교수를 필자가 만난 건 거의 10년전 2015년에 서울에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였는데 고려인 및 세계 한인 역사 연구로 이름이 알려진 김 게르만 역사학 박사가 인사시켰다. 필자가 사할린 출신이란 걸 알게 된 넬리는 "저도 사할린 출신입니다. 아주 어릴 때 6살 나이에 가족과 알마티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사할린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할린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의 임 엘비라 학장을 통해 이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난 11월에 사할린 국립대가 추진하는 '아시아와의 대화' 동계 국제학교 기획 일환으로 카자흐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학 대학(알마티)의 한 넬리 교수와 학생들이 사할린에 초대됐다. 한 교수는 사할린국립대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이 계획한 모든 일정을 소화하며,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백일과 돌: 잊지 않은 전통' 공개강연에도 한 강사로 참여했다. 사할린 일정은 5박6일이었는데 초대 측 행사로 일정이 빠빠한데다가 개인 일정도 만만치 않았다. 알고보니, 넬리 교수의 사할린 친척이 30여 명이어서 아버지 쪽 친척, 어머니 쪽 외척도 만나느라 바빴고, 동포사회에 관심이 많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 초대도 받았고, 동회 임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본사 기자와 인터뷰할 시간도 내주었다.

1972년생인 한 넬리 교수는 어문학 박사다. 어렸을 때 그녀의 꿈은 의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물론 의대에 지원했는데 입학시험을 볼 때 약간 점수가 모자라서 같은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 의학과 관련된 그녀의 꿈은 사라

졌다. 1990년대 초기에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의사직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처음엔 3년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그 후로는 오늘날까지 계속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학 대학교(외국어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이 대학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대학이다. 한국어는 해마다 400명이 배우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교육을 카자흐어로 또는 러시아어로 하기 때문에 한-러 과가 있고 한-카자흐어과 있다. 한국어 교사는 총 22명이다.

한 넬리 교수에 따르면 학생 모두 학비를 내고 공부하고 있다. 학생 400명 중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장학생은 7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사할린을 방문하면서 사할린에서 많은 학생들이 국가지원을 받고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워 했다.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수는 인구의 0.6%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대다수가 카자흐인들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동포학생은 약 20%다. 이걸 비교적 꽤 높은 비율이다.

좋은 한국어 선생으로 소문이 난 한 넬리 교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지인들에게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엔 하나, 둘, 다섯 명이었고, 다음에는 이들을 그룹으로 구성했는데 한 그룹, 두 그룹, 다섯 그룹, 점점 학생이 많아져 친구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온라인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구 모르겠다'해서 방 하나를 임대해서 학생들을 대면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지나 교실들



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물에 또 사무실과 방을 차렸습니니다. 지금 우리 학원에 수강생은 230 명입니다. 한국어 교사는 14명인데 그중 원어민이 4분입니다. 우리 '한상' 한국어 학원은 개인학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원을 찾아온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들은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 면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을 잘 보아야 하죠.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 기초가 하나도 없는 학생으로 시작하는데 1.5-2년 간에 토픽 능력시험에서 6급(최종 급)을 따내기까지 해요."라며 한 교수는 '한상'학원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농담을 하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도 이야기에 진심을 담아 말하는 한 교수는 성격이 활달해 뭔가 항상 일을 벌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을 지녔다.

한 넬리 교수는 현재 다섯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운영위 위원으로서 한민족 문화 및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이 그는 고려인협회 주최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실시했다. 그 때 카자흐스탄의 여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알마티에 모여 집중적으로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 기획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고, 발이 넓은 한 교수는 김 게르만 역사학 교수, 올림픽 챔피언 장 스페틀라나 태권도 선수,

김 립마 이와노브나 카자흐스탄 국민 배우(조선 무용) 등 이름난 고려인 인물들을 섭외해 강연과 수업을 하게 했다. 평소 접하지도 못한 인물들이 가르치는 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은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위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던 국민대학교에 예비교사 6명을 한국 측의 전적 지원으로 보내어 이들이 2주간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수업을 받게 하였다. 캠프 3번째 주에는 알마티와 알마티주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캠프가 인기가 많아 지금도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규모의 캠프를 개최하는 데는 적잖은 저력이 정말 필요했다. 첫 캠프 이후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 고려인협회에서 한국어반을 개설했다.

한 교수는 로타리 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 로타리 클럽과 카자흐스탄 로타리 클럽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민주평화통회의 자문위원으로 장기간 참여했다. 2014년에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회가 설립 되었는데 거기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교수들이 가입했다. 협회 회원은 약 70명 정도, 이 다섯 나라는 순화하면서 해마다 6월에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회를 개최하며, 서로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한 넬리 교수는 이 협회의 운영위 위원이다. 그가 진행하는 큰 기획 중 하나는 2021년부터 중앙한국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학자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획이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해마다 10만 달러의 장려금을 받고 있다.

한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인간적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헌신할 줄 아는 데에

여러 번 놀라기도 했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때 약 5년간 '하바르'카자흐스탄 국영텔레라디오방송국에서 한국드라마 번역원으로 일해왔다. 첫 3년은 일반번역원으로, 마지막 2년은 편집장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일이고,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 구매를 안 하기로 결정했고, 넬리는 박사학위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박사학위를 준비할 때 그의 일정은 말할 것 없이 바빴었다. 그녀의 일정은 저녁 10시까지 대학과 관련된 일, 밤 1시까지는 드라마 번역, 밤 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박사 논문 쓰기였다. 이런 식으로 1년을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한 교수는 연구하며 한국어 사전, 연구서, 한국어 교재 등을 출간하기도 했다.

가정에서 한 넬리는 3자녀의 어머니이며,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다. 그의 맏아들(25세)은 매니저로서 어머니의 학원 일을 돕고 있고 둘째(18세)는 부산대학교 인공지능과 장학생이다.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많은 세계 및 국가 경시대회에서도 우승하며, 로봇기술 등 연구하기도 했다. 셋째는 15세의 딸인데 그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대신 역할극에 호기심이 많아 여러 의상을 직접 만들어 입기도 한다. 그녀가 하는 얘기에는 자녀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보였다.

한 넬리 교수는 밝은 미소로 뒤편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었으며, 전문성을 갖추는 데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관람 추천>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관람 추천> 지역 사진 공모전이 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시작된다. 이에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참가 대상은 14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이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창작 공모전은 사할린 지역의 관광코스 및 명소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펼쳐진다.

접수는 693000,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하비롭스카야 거리, 78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하며, 제출 시 사진 작품에 '관람 추천' 사진공모전 앞으로라고 표기해야 한다. 공모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항목에서 알아볼 수 있다. 출품된 사진작품들은 경연의 심사위원과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되며, 결과 발표는 2024년 2월 21일 세계 관광안내의 날에 이뤄진다.

### Фотоконкурс «Рекомендовано к посещению» объяв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Краеведческий конкурс фотографий «Рекомендовано к посещению» старту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11 декабря по 11 феврал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ОУНБ.

К участию в фотоконкурсе приглашают россияне старше 14 лет. Творческое состязан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остров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6930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Хабаровская, 78 (ГБУ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 пометкой «Фотоконкурс «Рекомендовано к посещению». С правилами конкурса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в Положении.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выбраны 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и конкурсным жюри.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состоится 21 февраля 2024 года, во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экскурсоводов.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뽀메니(만두)의 날> 기념

12월 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까운 시공원에서 환호 속에 <뽀메니(만두)의 날>을 기념했다. 축제팀이 방문객들을 위해 만두 100kg을 준비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올해로 <만두의 날> 축제는 8회를 맞이했다. '투르스타트' 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에 만두축제는 겨울 우수 미식행사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되었다.

축제에서는 <만두와 그 친구들> 미식 마라톤의 우승자와 참가자들에게 시상하며 축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미식 마라톤이 11월 3일에 시작된 가운데 마라톤 결과 11개 요식업소가 8회 미식축제에 참가했다. 올해는 <만두와 그 친구들> 미식 마라톤이 2주간 진행되어, 2200세트가 판매됐고,

지난해에는 1400세트가 판매됐다. 2021년에는 420축제 메뉴 세트가 판매됐다.

수상 부문에는 <히트 판매> 부문, <우수 축제 메뉴 세트 제공>부문에서 844세트를 판매한 '생선은 나의 꿈' 레스토랑이 우승했다. <지역 우수 만두 생산업체> 부문에서는 '파브리카 브쿠사' 브랜드의 지도 아래 생산을 가동하는 '사할린 식품공장'이 차지했다. '하나안' 식품업체는 학생들을 위한 생산시설 견학 조성으로 상을 받았다.

### «День пельменя»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9 декабря с размахом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ельменя». Команда фестиваля пригостила для гостей 100 кг пельменей,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ику исполнилось восемь лет. В 2017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опал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зимни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по версии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ТурСтат».

На празднике отметили участник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3 ноября. Участниками восьмого по счету марафона стали 11 завед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за две недели марафона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было продано 2200 блю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 1400 сетов. В 2021 году заведения реализовали всего 420 фестивальных блюд.

(8면에 계속)

#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축하 기념식 개최

지난 12월 8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열렸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1993년 12월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에델야노바 거리 19-A 제21학교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2006년 12월 29일 현재의 한인문화센터로 이전해온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한인동포들과 러시아인들에게 꾸준히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연 7천 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한류 영향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수강생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반 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과, 동양감나지아, 제2감나지아, 제32학교, 코르사코브 제2학교와 제4학교,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체부라쉬카>유치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한글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관하여 한국 유학이나 취업 희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제공, 상담, 현지 적응 도움 및 교육도 시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아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장, 사할린주 한국교민회 대표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7대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을 지낸 장원장 현 첼라빈스크 대학교 수와 이재현 현 하바롭스크교육원장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학생들의 한국 전통무용 북춤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귀빈들의 축하, 개원 30주년 기념 문예 공쿠르 입상자 시상, 원료교사 권건자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에게 감사패 전달, 정승훈 원장의 감사 인사 순서로 마무리 되었다.

행사 도중 축하 공연을 해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북춤/부채춤/소고&설장구춤)과 12월 1일 K-Pop 축제에서 입상한 코르사코브 제2학교 댄스팀, 코르사코브 제4학교 졸업생 브라즈노바 알로나, <체부라쉬카>유치원생들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 한국교육원 30주년 기념 문예공쿠르 수상자 발표 및 시상

202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는 2023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문예공쿠르 공모를 개최했다.

지난 8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자리에서 문예공쿠르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있었다. 글은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할 수 있었고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이어야 했다.

이날 한국어 부문 시상은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 러시아어 부문 시상은 심사위원장(러시아어부문) 최 빅토리아 작가가 하여 입선자들에게 상장, 상금과 상품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부문

대상: 림복희(72세)

우수: 차바이 야나(20세, 사할린국립대 학생)

장려: 한 폴리나 (18세, 사할린국립대 학생)

미셸코 소피아 (14세,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학생)

러시아어 부문에서는 사할린국립대 학생 안찌포와-키리나 타치아나가 우승했고, 림복희, 미셸코 소피아, 파노와 울가, 하를로와 알리나에게는 부문별 상이 수여됐다.

아래에 수상자 글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로부터)

## 장려상

# 언어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여행이다!

미셸코 소피아, 14세,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반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수업에 가기로 했다. 그때 나는 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드료모바 알렉산드라) 선생님의 도움으로 친구들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었고,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 알라 발레리에브나(오점순) 선생님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한국과 관련된 대화와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한국 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국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고, 한국의 전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단순한 취미가 그 이상이 되었다. 관심사도 바뀌었고, 인생관도 바뀌었다. 나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나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드료모바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선생님은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며, 나를 이끌어주고, 한국어 학습에 성공하기 위해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왔다. 내 삶에 있어서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준 사할린 한국교육문화센터에도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다.

# 사할린주에 선진 공업학교 탄생

사할린 국립대학교에 선진 공업학교가 탄생한다. 지난주 러시아 교육부 장관 왈레리 팔코브는 장려금위원회 전권대표로서 그의 지도로 선진 공업학교 설립에 기반이 될 대학들의 개발 기획들을 검토한 가운데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총리가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발 경연에 총 73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결선에는 40개 지역에서 57명의 도전자들이 참가했다.

'선진 공업학교'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정한 사회-경제개발의 42개 전략계획 중 하나를 토대로 만들어진 연방기획이다. 2022년에는 선발 경연 결과 러시아 연방 15개 행정자치지역의 30개 대학들이 기획의 우승자가 되었다. 2023년 2차 선발 결과 선진 공업학교는 50개까지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8개 지역들에서는 처음으로 공업학교가 설립된다.

<섬들의 공학>선진 공업학교가 설립될 지역들 중 한 곳이 바로 사할린주다.

이 공업학교는 외딴 지역을 위한 자동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거점으로 설립된다. 이 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전력 생산의 지출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업학교는 지역의 동력체계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공업학교에서는 가장 혁신 분야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분야의 특화교육을 하게 된다.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사할린 주거지의 개별적 에너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업학교 설립의 일환들로 개발되는 기술적인 해결책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전 사할린주의 발전을 촉진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의 산업 협력기관들은 합자회사 '루사툼 오베르시즈', '페트로사흐', 공공합자회사 '루스기드로', '로스세티', 현지 가스터빈 발전소, '사할린 에너지야', '스베르뱅크', '엘리스' 과학실험센터이다.

연방 경연에서 사할린주의 승리는 유사한 과학연구소를 지닌 국내 대형 대학들과 나란히 경쟁력을 갖게 되어 사할린국립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공업학교가 유망한 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며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을 교육하는 기획을 시작했다. 이에 900명 이상의 재능있는 학생들이 합류했다. 향후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기획 <과학과 대학>의 일환으로 건설될 '사할린 테크' 새로운 캠퍼스의 대학생들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은 필수 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할 공업학교이며, 석유, 가스, 새롭고 유망한 산업 분야 등 이 모든 분야들은 자격을 갖춘 기술적 인재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 곧 사할린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강조했다.

현재 '로사툼', '로스코스모스', '로스테흐', '시부르 힐딩', '가스프롬 네프트' 등 190개 산업 협력체가 선진 공업학교와 협력하고 있다. 이런 산업 협력체들의 수는 2024년 말까지 250개로 늘려야 한다. 이에 연방 정부는 기획 참가 대학들에게 연방 예산에서 183억 루블리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며, 따라서 새로운 선진 공업학교에는 약 45억 루블리가 배정된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 Искусство каллиграфии со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скусство каллиграфии сое, как искусство «утонченно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сти»,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в русле сложившихся канонов и школ. Бён Чхан Хон –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тарой школы, предпочитающий писать на китайском.

Для него, как для «человека культуры», было ценн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слово, чутко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в классическую поэзию, улавливая нюансы движения души поэта, ритм поэтического языка и «переводить» их в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ие «сюжеты-образы», наполняя пространство свитка одухотворённостью Бытия:

Поле, где присела белая цапля, покрыто снего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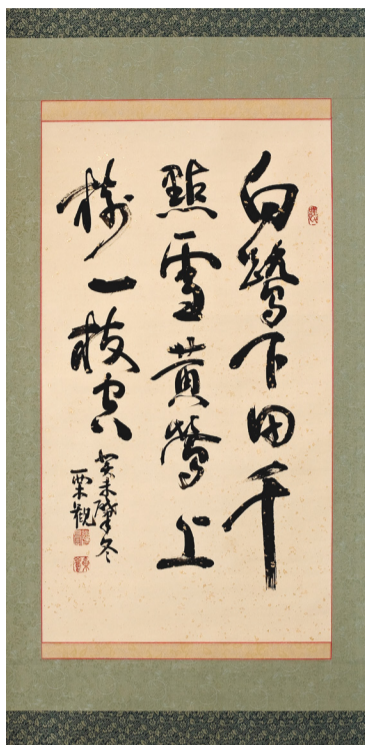
А на дереве, где гнездилась желтый соловей,

Осталась одна лишь ветвь.

Чон Чхоль (1537-1594)

Соотношение ритма в расположении знаков, четко выраженное движение иероглифов и плотность мазков туши помогают воссозданию монохромной картины зимнего холодного простора. Желтый соловей, как живописно-поэтический образ-воспоминание ушедшего лета, усиливает временной контраст. Безупречно владея искусством «кисти и туши», Бён Чхан Хон «переводит» поэтические строки известного поэта XVI века Чон Чхоль в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и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образы, выстраивая ритм композиции, избрав определенный стиль написания иероглифов. Важ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задачей для каллиграфа являлся поиск графического сти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одержательной части. Тема цикличности природных сил, смены времён года выявлена авторским подбором бумаги: тёплого желтоватого оттенка с редкими вкраплениями золотистого напыления.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Бён Чхан Хон (1930-2010).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ле, где присела белая цапля, покрыто снегом... 2003 г.

Бумага тонированная, тушь, напыление. 68,5x38,5; 131x49

Поступление: с выставки «Искусство письма» (СОХМ), 2009 г. КП-8606 Г/в-3627

## Всеобщие выборы под контролем полиции

Сеул, 12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Пол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пресекать нарушения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со вторника, поскольку регистраци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апрельских всеобщих выборах начинается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ообщ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Национальное бюро расследований заявило, что создаст целевую группу для усиления сбора данных о незак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выборами, и буд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местными наблюдателями за выборами и гене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ой для пресечения нарушений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на будет конкретно направлена против получения взято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езинформации, насилия на выборах, незако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групп для предвыборной агитации и учас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в избирательных кампаниях, что может серьезно нарушить беспристрастность выборов.

Она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следить за социальными сетями,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лияние фейковых новостей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при голосовании, и решительно бороться с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в кибертеррора, включая взлом или распределенные атаки типа «отказ в обслуживании» (DDoS) на веб-сайты Национ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или партий.

## РК заключила рекордный объём контрактов на рынке контента

В этом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заключили контракты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вещательных видеоконтентов на сумму 115 млн 250 тыс.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ым. Он на 81,25% вы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нтракты заключены на шести крупных площадках. Это крупнейший азиатский Кинорынок FILMART в Гонконге, MIPTV Media Market и MIPCOM во Франции, LA Screenings в США, TIFFCOM в Японии и Asia Television Forum and Market в Сингапур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нтентеры вызывают всеобщий интерес, поэтому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ить поддержку в их выходе на новые рынки.

KBS World

## 30-лети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отпраздн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 декабря 30-летний юбилей отпразднов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стями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бывший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жан Вон Чан, директор Хабаров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Ли Дже Хен,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СК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дагоги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бласт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ачалось с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Бит Уллим», представившего гостям красивую музыкальную композицию.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Чжон Сын Хун поблагодарил всех, кто в течение 30 лет оказывал поддержку развит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игласил для поздравлений Глав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Пак Сан Тхэ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и отметил, что Центр культуры и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имеет долгую историю, и это подчёркивает значим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Он пожелал продолж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истории Центра.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одной трети века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нимается воспитанием и обучением неравнодушных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людей и за этот период времени умелые педагоги приумножили знания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уче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тников Центра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проходят интереснейшие мероприятия, растёт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играю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педагоги, поэтому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тарались собрать на праздник все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чётной профессии: от педагогов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д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лично поздравил и поблагодарил работников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чьи труд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четной про-



фессии отметили важность и значимость работы Центра в достижении общей цели.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одготовила видеотчет о работе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проведённой с участием сотрудников центр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 2023 год. А самые юные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Чебурашка" подготовили номер по мотивам сказки "12 месяцев".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ых речей, последовали яр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учеников школ № 2 г. Корсакова - призеров фестиваля "Sakhalin K-pop 2023".

В этот день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при ККЦ представил гостям очаровательный танец с веерами. А завершающим выступл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музыка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ельгори".

Состоялось такж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награждение лучших работ конкурса-эссе "Язык-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и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Ли Е Сик

## 8-й Форум FLC Re-Union CIS в Москве

В период с 8 по 10 декабря 2023 г. в Москве, в гостинице Сушевский Сафмар прошел 8-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CIS.

По традиции на форум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и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де живут корейцы. Форум объединил участников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Алматы и Бишкека,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и Ярославля, Волгограда, Омска и Саратова. Отрадно, что самым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делегациями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товской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регионов, где проживают большие корейские общины.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форума –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успешный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созд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Поэтому очень ценным б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Игоря Кима, руководителя молодежного центра Миринэ из Волгограда. Игорь рассказал, как из простой идеи, которую разделяли несколько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удалось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ыстроить настоящий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устраивать ежегодные фестивали,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тысячи людей. Игорь предложил всем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 приехать в Волгоград, заявил о своей готовности делиться успеш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вызвал доклад кандидат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Ким Ен Сун (Софьи Георгиевны) на тему «Этническая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молодежи». Было по-настоящему интересно услышать,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ь раскрывает путь молодых людей к открытию своей идентичности.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попытался, на основе материалов доклада, поразмыслить о своей идентичности,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 кто же я на этом свете?

Тема идентичности была продолжена в пре-



зентации проект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Семнадцать дней» Валентины Пак и видеообращении режиссера Джозефа Джуна. Их взгляды на идентичность, на сохранение единства диаспоры отличались, так как это люди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и живут они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Но этим они и были ценны.

Постоянно улучшать свои навыки – вот задача для любого лидера. Поэтому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был проведен мастер-класс «Сторителлинг: как рассказать историю». Предваряя занятие, писательница Виктория Цой, автор недавно вышедшей книги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 взглядом на идентичность.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вызвали также доклад Дмитрия Шина об участии братьев Ким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рыма в годы ВОВ, и выступление Андрея Цая на тему: Как создать успешный бизнес не в Москве.

Форум прошел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Коре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гресс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рума выражают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эт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ледующий 9-й по счету форум FLC Re-Union CIS запланирован в Москве с 15 по 17 ноября 2024 г.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ся мемориальный зал Ли Бом Чжина

11 декабря в здан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К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ся мемориальный зал первого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ии в России Ли Бом Чжина.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Юлия Пискулова, праправнучка Ли Бом Чжина,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л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с 1901 по 1905 год. Он остался в России, оказывая помощь в поддержании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он занимался сбором средств на поддержку борьбы с японскими оккупантам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1910 году Япония установила протекторат над Кореей, Ли Бом Чжин покончил жизнь самоубийством.

## Президент РК посетил штаб-квартиру ASML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Нидерландов буд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компаниями-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двух стран.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осещая 12 декабря штаб-квартиру компании ASML, которая выпускает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Она расположена в голландском Вельдховене. Юн Сок Ёль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й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стабилизации глобальной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Samsung Electronics и SK hynix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ть крупнейший в мир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ый класте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подписали три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Один из них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нидерландской академии передовых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Она предоставит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студентам из двух стран пройти практическое обучени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еред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Samsung Electronics и ASML создадут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разработок технологий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РК. SK hynix и ASML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д технологиями повтор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дор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первые в ходе зарубежной поездки посетил промышленную компанию.

## РК и Индонезия обсудили реализацию СЕРА

12 декабря на острове Бали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РК и Индонезии по Всеобъемлющему соглашению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СЕР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стороны оценили результа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мках СЕРА и обсудили планы 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Д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первого янва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н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ня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 на 95,5% индонезийских импортных товаров, а Индонезией - на 93% товаров из РК.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облемах,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деловые круги страны в работе на индонезийском рынке.

## РК и Ватикан отметили 60-летие дипотношений

Конференция католических епископов Кореи провела 11 декабря в Мёндонском соборе в Сеуле специальную мессу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60-лет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Ватиканом. В послании участникам мессы Папа Римский Франциск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во им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слание зачит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апостольского нунция в Корее монсеньор Фернандо Дуарте Баррос Рейс.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ференции католических епископов Кореи Матиас Ли Ён Хун напомнил об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оказанной Святым Престолом для признания РК в качестве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воём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м послани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разил глубок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атикану и Корейской католической церкви за их роль в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РК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В тот же день специальная месса состоялась в Ватикане.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Ю Ин Чхон.

## Пибимпап – самое популярное блюдо года по версии Google

Варёный рис с овощами пибимпап стал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блюдом 2023 года по версии поискового портала Google.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просов отражает рост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Между тем, а РК это блюдо не вошло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популярных запросов. В категории песен на пятом месте по числу запросов песня Cupid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руппы FIFTY FIFTY. Песня Seven в исполнении Чонгука из BTS также вошла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тем самым подтвердив высок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группы. В глоб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телесериалов отмечены такие работы как King the Land и The Glory. Они заняли шестое и седьмое мес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категории популярных личностей и видеороликов, запечатлевших события года, были назв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утболист Сон Хын Мин, а также музыкальные группы BTS и BLACKPINK. **RKI**

## Алматы. Столетие «Корё ильб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47)

Кульминацией торжеств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Корё ильбо», безусловно, стал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во Дворце Республики. Посетил его аким города Алматы Ерболат Досаев.

Полный зал Дворца Республики предвкушал грандиозное событие. 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 концерта началась с вынос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Казахстана, это было впечатляющее зрелище.

Ведущи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концерта первым для приветствия дали слово председателю АКК Шину Юрию Германовичу. Его речь была лаконичной, по существу, о значении газеты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Речь была произнесена на русском и казахском языках, это тоже меня впечатлило.

Затем дали слово для приветствия заместителю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Марату Азильханову, который зачитал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Корё ильбо» о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о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читаю самым важным документом уважения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а к корейцам Казахстана.

В приветствии вице-министра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информации Казахстана Каната Искакова была подчеркнута важная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издания в медиапростр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Приветствие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Джо Тэ Ика была интересна тем, что он зачитал ег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онстантин Ким,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завершил официальную часть яркой речью о газете, о будущем корейского издания, заверив, что 100 лет,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пути. И еще, речь Константина Станиславовича запомнилась, как речь зрелого мужа, решительно и мужественно смотрящего в будущее.

Затем началос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Театра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был создан рассказ о столетнем пут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Запомнилось, как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средствами сцен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здали переломный момент истории, когда в 1937 году спасли корейский шрифт, перевезли его в целостности и сохранности для будущей нации.

Вторая часть концерта, как бы, была продолжением первой, после тяжких испытаний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живут в прекрасное время — во времени Нового Ка-



захстана. Впечатляющими были танцы коллективов «Бидульги» и «Нам Сон». А в танце «Бидульги» солировала сама Народная Артистк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Римма Ивановна Ким, это было что-то невероятное. Илона Тен исполнила оперную партию. Были еще песни, которые запали в душу.

Грандиозное шоу завершилось выходом на сцену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и Казахской ССР Розы Рымбаевой. Зал ликовал.

(Владислав Хан,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звали готовиться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Россией в развитии Севморпути

Хот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факторы геополитики не способствуют акти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но Южной Корее необходимо быть готовой к тому времени, когда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завершится и станет гораздо проще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Россией по вопросу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Об этом 12 декабря на проходящей в Пусане конференции "Неделя арк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3" заявил директор НИИ логистики Арктики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ан Хон Сон Вон.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Круглогодичн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СМП и реакция Кореи" эксперт отметил, что крупнейш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Пусан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ыгодно расположенн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по Севморпути. Анализируя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этом маршруте, он указа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изучить пути разделения политики от экономики, бизнеса, предусмотре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арианты действий на различных этапах".

Специалист заявил,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есть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ебольших и средних морск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мпан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и с большим опытом, которые хорошо подходят для работы на Севморпути и участ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роектах.

"Факторы геополитики сейчас не позволяют, к сожалению, полностью реализовать имеющийся потенциал... Однако в кратк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в условиях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 РФ санкций Запада, необходимо уже готовиться к работе на СМП путем изучения вопроса о создании консорциума компаний... В средней 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когда санкции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надо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малым и средним морским транспортным компаниям РК в их попытках работы на Севморпути", – заявил Хон.

Среди прочих направлений возможного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на СМП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он выделил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с участием морск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и мультимодальных лог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активизац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ортами Пусан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оказание поддержки корейским мультимодальным логистическим компаниям в процесс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проектам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орган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для участия российских в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ах.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усан, РФ)

## Число молод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сократится вдвое

Сеул, 11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По прогнозам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в ближайшие 20 лет на фоне тенденции быстрого старения и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Согласно анализу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число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34 лет достигло 10,21 миллиона в 2020 году, и, по прогнозам, эта цифра сократится до 5,21 миллиона в 2050 году. Доля молод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а 20,4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но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2050 году она снизится до 11 процентов, добавило агентств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численность молодежи неуклонно сокращалась с 13,85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в 1990 году, что составляло 31,9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до 12,88 миллиона в 2000 году, 10,97 миллиона в 2010 году и 10,21 миллиона в 2020 году. За послед-

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доля неженатых людей в эт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возросла. В 2020 году 7,84 миллиона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е состояли в браке, что составляет 81,5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данн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в 2000 году эта доля составила 54,5 процента, а в 2010 году выросла до 68,9 процен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изошло резко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молодых женщин, при этом доля работающих женщин подскочила с 42,3 процента в 2000 году до 61,1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реди мужчин 63,9 процента имели работу в 2020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66 процента 20 лет назад. Общи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в стране — среднее число детей, которых женщина вынашивает за свою жизнь, — в 2023 году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 около 0,7.

## В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юны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вручили паспорта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аспортов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стоя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Свой самый главный документ получили юны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которые достигли значимых успехов в обществ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й, науч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 словами приветствия к юны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обрат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Рад поздравить вас с двойным праздником! Получение паспорта в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волнующее событие. Этот документ наделяет вас не только правами, но и больш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перед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Перед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обществом. Помните, что настоящий гражданин делает все для процветания Отечества. Уважает традиции и культуру. Сохраняет единство с нашим народом. Ребята, все вы талантливые люди. Важно, чтобы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вы реализ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тобы вы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ую профессию и работать в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ях региона, мы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троим современный кампус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здаем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интересного отдыха,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и творческой реализации. Оставайтесь жить на островах, чтобы делать их такими, какими сами хотите видеть,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Сенато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Хапочник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перед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открывается широкая дорога.

–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доказали, что могут быть лучшими. Необходимо внимание взрослых, власти, чтобы они с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на пользу себе, семь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е, – подчеркнул Андрей Хапочник.

Свой паспорт сегодня получил житель Поронайска Егор Волк. Он успешно выступает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боксу, награжден дипломами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за отли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истанционном конкурсе по информатике,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математике,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Олимпик 2023 – Весенняя сессия», является победителем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биологии.

– Когда готовился к получению паспорта, придумал себе личную подпись. У родителей взял, получилась похожей. Очень рад, что все прошло так торжественно. На всю жизнь запомню,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Егор.

– Я рада оказаться здесь. Паспорт – первый документ и для меня важно, что я получила его именно в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ассказала Дарья Короткова из Южно-Курильска. Девушка увлекается народными танцами и ежегодно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е школьников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едметам.

Паспорта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получили 25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Более 150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благоустро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подвело итог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чиная с 2019 года, новый облик на островах с помощью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олучили свыше 150 скверов, парков, набережных и других пространств.

Жительница Поронайска Людмила Лысак – молодая мама и частый гость новой зоны отдыха в районе «Рефулеры». В этом году здесь благоустроили территорию, установили детское и спорти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устроили зону барбекю. Проек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ыбрали сами жители район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 Мне нравилось здесь и раньше, но посл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есто завоевало особую симпатию. Здесь появились беседки для отдыха, детский игровой комплекс, что для меня как мамы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тало очень удобно приезжать сюда с семьей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причем как летом, так и зимой. Тут есть лыжная трасса, место для катания на санках, – поделилась Людмила.

Лидером по числу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стал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 За 5 лет здесь преобразили 2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этом году жителей Невельска порадовала обновленная набережная по улице 70 лет Октября. На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ках уложили плитку, сделали тротуары, установили скульптуры, детское и спорти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Старая набережная давно потеряла свой вид. Тротуар разрушился, детские аттракционы стали травмоопасными.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результат – здесь стало уютнее, интереснее и, главное, безопаснее,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Невельска Анастасия Кошкин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прошлые годы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скверы Пограничников и Авиаторов. В это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радовал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между торговым центром «Клевер-Холл» и жилым

комплексом «Грин Палас». Здесь появились спор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качели, скамьи.

–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уютным, комфортным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как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и для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Города и села преобразуются,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красивые скверы, парки и набережные. В этом также есть и заслуга сами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свои территории во время голосовани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держать самые активные районы и включить в программу не один, а несколько скверов,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 пример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акаровский и Томаринский районы показали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на голосовании, поэтому там преобразили по два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Макарове – сквер «Без пяти семь» и «Ленинградский сквер», а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и Ильинском – зоны отдыха.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в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лагоустроят 21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Это сквер имени Тельнов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сквер рыбаков в Рейдово,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памятника «Паровоз ТП-4-524» в Охе, сквер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другие.

## Внутренний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далось увеличить более чем в полтора раз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нутренний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алось увеличить более чем в полтора раза.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нию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на социальных маршрутах были субсидированы тарифы, запущены новые маршруты и увеличена частота на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рейсах.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ты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депута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Сегодня вопрос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регион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реше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нию на базе нашей «Авроры» Еди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и это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ручил субсидировать тарифы на социальных маршрутах. Цены на билеты снизились. Например, сегодня можн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летать в столицу и обратно за 26 тысяч рублей. Мы добились увеличения частоты рейсов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осквой.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увеличилось с 9 до 19 в неделю. В этом году введен сервис «Лист ожидания». Он помогает приобрести билет каждому, кто обратился. Подчеркну, такой практики больше нет нигде в Росси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ено возведение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а – лучше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йчас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Также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бустроено посадочные площадк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Зональном, Смирных и Леонидово на Сахалине и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на острове Парамушир,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 аэродром в Охе.

Жители Шахтер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и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ов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напрямую летать в Хабаровск.

–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федер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депутатами разных уровней. Мы видим, что ситуация в транспортной сфере улучшается. Видим, что даже застарелые проблемы разрешимы. Все мы помним 2019 год, когда жители не могли, к примеру, поехать в отпуск и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из-за нехватки билетов в пиковый летний период. Особ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были с Куриль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ситуация улучшилась. Это связано с целым комплексом мер, – отметил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ей Плотноков.

– За прошедшие пять лет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региона вышла на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Много внимания было уделено в том числе морскому сообщению.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куриль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явились два новы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на –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ий» и «Павел Леонов». Вместе с авиацией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ло надежность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с Куриль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Причем билеты покупают 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и туристы. Выросло и число рейсов на Курилы в пик сезона.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Итуруп и Владивосток связал новый рейс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 результате все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увеличился с 56 до 85 тысяч пассажиров, – рассказал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Шарифулин.

К работе на линии Холмск – Ванино приступил паром «Александр Деев».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ится аналогичное судно «Василий Ощепк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у транспорту – завершена перешивка стальной магистр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на стандартную колею 1520 мм.

Сегодня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интегрируют в систему город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льная магистраль должна стать главным видо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городе. Для этого построено 3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х узла и 3 совмещенных остановочных

пункта. В будущем появятся 12 станций.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Также на путях сделают специальные вставки, чтобы встречные поезда могли расходиться без остановок. Задача – сократить интервал движения в режиме внутригород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 60 до 30 минут.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ках используется более 500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втобусов. В этом году приобретено 275 новых машин –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обновлен более чем наполовину. При этом свыше 300 автобусов работают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Это важно для улучш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Стро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добный для водителей современн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он будет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дорог. В 2019 году только треть проезжих участков на островах имела твердое покрытие.

Чтобы ускорить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главной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ее передали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Теперь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ведут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трассе было уложено 59 км асфальта. В этом – 32 к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трассе появится еще почти 60 км асфальтобетона. Останется около 52 км,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5 году.

Други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явля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и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Там уложили 31 км твердого покрытия. В 2024 году островны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ввести еще 31 км. Останется 98 км. Реконструкцию трассы намерены завершить в 2027 году.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а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из города.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в 2024 году.

##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зентовали каталог лучших работ островных художников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каталога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олотой фонд». В книгу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писаны островными авторами с 1946 года. Всего – около тысячи работ. Художников и ценителей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онна Лаврик. Презентация каталога состоялась в стен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 А. П. Чехова.

– Сегодня мы присутствуем на уникальном событии – презентуем каталог лучших работ наших художников. Хочется напомнить, что идея создать его принадлежит нашему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Уже полгода мы реализуем проект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это время у нас появилось замечательное сообщество авторов. Их у нас больше 80. Кроме того, мы откры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выставочных залов и мастерских. Например, в Сити Молле и студии «Рост». У нас проводятся мастер-классы, художники получ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творческ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Думаю, что все, кто познакомится с работами наших авторов в каталоге, захочет увидеть картины вживую, в наших музеях,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В каталог вошли работы,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ывают об удивительной истории региона, его богатом культурном наследии, уникальной островной природе и живущих здесь людей. Первые экземпляры объемной книги вручили выдающи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т каталог состоит из 5 томов.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наша команда просмотрела фонды музеев, частные коллекции и мастерские художников. Изучила более 15 тысяч картин. Из них отобрали около тысячи. Конечно, мы будем что-то дополнять. Но этот каталог будем самым родным, потому что он первый,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 Считаю, что наше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 это талантливые люди. И здорово, что сейчас им уделяют так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Я регулярно хожу на выставки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Видно, что уровень островных мастеров растет. Горжусь, что живу с ними на одном острове. Желаю всем нашим авторам попасть на страницы следующих изданий каталога,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аталья Константинова.

В этом году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о мощн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ткрылось несколько выставочных площадок: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РОСТ,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галерея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Кроме того,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на Вокзальной. Началось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еще одной галере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а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в здании «Современника».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получили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знакомить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со своими работами и продавать картины.

Совместно с ведущими музеями страны реализовано 72 выставочных проекта. На Сахалин стали привозить произведения выдающихся авторов, экспонируются картины из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Работы из запас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галерей и музеев вывозятся в районы.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78 выездных выставо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범진 공사 기념관 개관

##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대한제국 외교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한국총영사관 건물 1층에 조성

대한제국 당시 러시아 주재 외교관이자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인 이범진 공사의 기념관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네크라스바(Nekrasova) 32-A번지에 있는 한국총영사관 건물에 조성됐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한국총영사관(총영사 변철환)은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의 지원을 받아 현 청사 건물 1층에 이범진 공사 기념관을 조성하고 12월 11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변철환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이범진 공사의 외고손녀 피스쿨로바 교수와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정부 인사,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장 및 고려인협회장, 러시아 한국학계 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범진 공사는 1899년 주러시아공사로 임명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3개



12월 1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네크라스바(Nekrasova) 32-A번지에 있는 한국총영사관 건물 1층에서 열린 이범진 공사 기념관 개관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국 공사를 겸임하다가 1901년부터 초대 주러시아 상주 공사사로 근무했다.

이 공사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에도 러시아에 계속 체류하면서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지원하고 연해주 지역 의병활동을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는 등 일제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항거했

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자 비분강개해 이듬해 1월 자결, 순국했다.

이범진 공사 기념관에는 대한제국 시기 일제의 침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전개 상황, 이범진 공사의 구체적 활약상 및 공적이 사진 등의 자료와 함께 전시돼 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은 "한-러 외교사와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범진 공사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향후 기념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범진 공사 기념관은 러시아 인들과 현지 우리 동포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념관은 12월 12일부터 총영사관 운영시간과 동일한 시간(월-금요일 9-13시, 14-18시)에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재외동포신문)

### [우리말로 깨닫다]

## 척의 바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척의 세상은 그런 체하며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때로는 속이려고, 때로는 숨기려고 척하면서 삽니다. 그러한 척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삶에 바다를 이룰 지경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척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척하며 삽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는 척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도 우리는 아는 척하며 삽니다. 물어보면 얼버무리거나 때로는 일단 화부터 냅니다.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느냐고 말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은 '있는 척'과 닮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마치 가진 척합니다. 걸을 화려하게 꾸미려는 태도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걸이라도 꾸며 놓아야 사람이 속기 때문입니다. 예쁜 척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예쁜 척만큼이나 지탄을 받는 척도 드뭅니다. 예쁜 척이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여운 척도 비슷합니다. 안 귀여운 사람이 귀여운 흉내를 내면 실패한 귀여움입니다.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척하면 척, 척적박사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였다든 지긋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척이 부처님도 경계하신 깨달은 척입니다. 제일 위험한 척입니다. 깨달은 척하는 사람에게 속으면 약도 없습니다. 사회면을 덮는 뉴스 중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내용은 주로 깨달은 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척을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살면서 깨달은 척이 가장 어이없고, 올바른 척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평생 노력해야 할 목표임에는 분명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슬픈 척은 슬프지 않아서 우습고, 기쁜 척은 그저 헛웃음이 납니다.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은 잔합니다. 눈을 연신 깜빡이며 눈물을 참습니다. 괜시리 하늘을 쳐다보고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나온 거라고 둘러댁니다. 그래서 종종은 미친 척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알고 보면 사정이 있는 미친 척입니다.

미친 척도 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 수 없기에 저러 미친 척을 할 겁니다. 세상의 비난을 피하려고 막다른 골목길을 내닫는 느낌입니다. 막힌 길에 숨이 막힙니다. 크게 부딪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친 척에서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았는데 그 길이 새 길이 됩니다. 막힌 줄 알았던 길에 작은 문이 있고, 그 문이 스르르 열리기도 합니다.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끔은 미친 척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하면서 사는 게 인생일지 모르나 척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은 안쓰럽습니다. 어쩌면 그 바다에서도 헤엄을 잘 치는 척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아하게 팔을 저으면서 발은 엄청 빠른 동작으로 숨이 잦을 겁니다. 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척이 척을 낳고, 척이 척을 부릅니다. 숨이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이네요, 창문에는 멀리 붉은 해가 돌아옵니다. 척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가슴에 차올라서 먹먹합니다. 그런 내가 가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푹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윈지 청승맞네요. 처량하네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척이 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척을 할까요? 나는 내 앞에서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척의 바닷가에 서 있는 외로운 나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서울서 개최

## 12월 11일부터 나흘간 14개국 입양동포와 그 가족 등 112명 참가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2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모국과 각국 입양동포 간 유대감 형성과 연대강화를 위한 자리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14개국에서 입양동포와 그 가족 등 112명이 참가했다.

개회식에는 강복원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장, 임종성 더

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강복원 국장은 환영사와 기조강연을 통해 모국을 방문한 입양동포를 환영하면서 입양동포를 포함해 앞으로 달라질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자를 대표해 카를로 폴롬보 KORIA(Korean Italian Adoptive Association)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짧은 시간 동안 모

국을 알고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이 대회에 참가한 입양동포 모두는 '코리아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연결,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4일까지 이어진다. 대회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입양동포로서 마음속의 모국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크콘서트'에 참여하고,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외동포비자(F-4) 취득과 국적법 취득(국적회복), 친척 찾기와 유전자 검

사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기원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진다.

아울러 국가별, 지역별 참가자들 간 분과회의를 통해 입양동포와 대한민국이 상호발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한 뒤 자발적인 노력 등을 담은 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 사할린 동포 동화 출판에 함께해주세요!

국제청년센터 부산지부에서 사할린 동포 동화 출판 프로젝트 추가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동화 출판 프로젝트는 부산 기장 정관에 계신 사할린 동포분들을 직접 뵙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아낸 글과 그림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판을 위한 2차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모금 참여 계좌

우리은행 1005-603-016134 (예금주: 국제청년센터)

기부금은 사할린 동포의 아픈 역사를 담은 동화책 제작을 위한 인쇄비로 사용됩니다.

"함께하는 기억은 역사가 됩니다"

**출판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사할린 동포 동화책 출판

세계 정전의 시대 러시아 사할린 섬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할린 동포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제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제작하여 출판합니다.

모금 계좌  
우리은행 1005-603-016134 (국제청년센터)

기부금은 동화책 인쇄비로 사용되며,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소정의 기부금이 사할린 동포 이야기를 알리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사할린 동포 동화책 출판 프로젝트**

국제청년센터 부산지부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 러시아 사할린 섬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할린 동포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제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제작하여 출판합니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номинациях «Хит продаж» и «Лучшая подача фестивального сета» победил ресторан «Рыба моей мечты», который продал 844 сета. Лидером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местны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пельменей» стал «Сахалинский пищекомбинат», который выпускает продукцию под брендом «Фабрика вкуса». «Ханаан» был отмечен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экскурсий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для школьников.

## 사할린에 새해 준비로 7천 그루의 울카 준비

울카(성탄 트리) 판매를 위한 채벌권 경매가 12월 7일에 진행됐다. 대부분의 푸른 울카는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벌목이 이뤄지는데 총 1,300그루나 되고, 아니와에서는 새해 울카로 1,100그루가 벌목된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벌목이라고 사할린주 임업 및 수렵산업청이 전했다. 경매에 사할린의 전기관들이 참가했다. 전과 같이 수확한 울카의 대부분은 사업가들이 판매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송한다. 좋아하는 명절의 주요 상징에 대한 수요가 사할린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만큼 많지 않다. 주로 사할린의 전나무(이 나무 종은 솔잎이 더 풍성하다)와 가문비나무가 새해 트리로 장식된다. 이들 나무들의 평균 나이는 30년으로, 이는 빽빽한 산림지에서 진행되는 선택적 벌목으로서 다른 나무들의 성장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기도 한다.

## Почти 7 тысяч елей заготовят на Сахалине к Новому году

Аукцион сна право заготовки для продажи деревьев хвойных пород состоялся 7 декабря. Больше всего зеленых красавиц срубят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всего около 1,3 тысячи деревьев. В Анивском лесничестве заготовят около 1,1 тысячи новогодних елей – это второй по величине объе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аукцион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чти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а. Традиционно, большую часть заготовленных ёлок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везут на реализац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акого спроса на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любимого праздника, ка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ет больше ни в одном островном городе.

Заготавливаться будет пихта сахалинская (деревья этой породы более пушистые), ель аянская.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дерева – 30 лет. Это выборочные рубки,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в плотных лесных насаждениях и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ают условия роста других деревьев.

## 2024년부터 러시아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의무화 실시

러시아에서 내년부터 직장 내 러시아 국민 근로자를 위한 필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러한 검사의 일환으로 고용주들은 건강검진 진행을 위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타치야나 골리코와 부총리는 '2023년 - 국민건강' 회의 개막 연설에서 "국민 근로자들이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검진에 필수 의료보험체계의 특별 요금표를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주는 건강검진을 내부 의료기관을 통하거나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골리코와 부총리는 덧붙였다.

## Обязательную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работников введут в России с 2024 года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России введут обязательное диспансерное наблюдение за работающими гражданами по их месту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та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работодатели будут заключать договоры с медорганизация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Для приближения к работающим гражданам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водим с отдельным тарифом систем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диспансерное наблюдение за работающими», – заявила вице-премьер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 в ходе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открытии конгресса «Национальн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 2023».

Диспансерное наблюдение работодатель смож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как с помощью внутренней медорганизации, так и сторонней, с которой будет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уточнила Голикова.

## 보이스피싱범, 사할린 주민의 은행 온라인 시스템 해킹해 26건 자금 이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7세의 여성 주민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해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 여성에게서 30만 루블리를 빼앗아갔다고 사할린 내무국이 밝혔다. 경찰에 신고된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라 사칭하는 익명의 사람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피해 여성의 대출금 상환을 변제하도록 하는 보너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익명의 사기꾼에게 SMS로 코드를 말해주고 온라인 은행 개인창구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 사기꾼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피해 여성의 계좌에서 26회 이체를 실행하여 총 30만2,209루블리를 털어갔다. 이 사건은 범죄사건으로 기소돼 수사 중이다.

## Мошенник взломал онлайн-банк сахалинки и сделал 26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47-летняя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подверглась мошеннической атаке и лишилась сбережений. Аферист похитил у нее более 300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лиции потерпевшая рассказала, что 4 декабря ей позвонил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банка. Собеседник сообщил, что женщина може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бонусов,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погасить ее кредит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Далее потерпевшая называла неизвестному коды из смс, что позволило ему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ее личному кабинету в онлайн-банке. Мошенник совершил со счета женщины 26 перевод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302 209 рублей.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